

전북 MICE 인프라 홍보 · 교류 나선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 청년 MICE 서포터즈 마이스어스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 참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전국 청년 MICE 인재들과 교류하며 전북의 MICE 산업과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 청년 MICE 서포터즈 ‘마이스어스’ 27기 16명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국MICE협회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BE THE LINK - 청년과 지역을 잇고, MICE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전국 MICE 서포터즈 200여 명이 참여하는 청년 MICE 교류 행사다.

전북 마이스어스는 이번 총회에서 전북의 우수한 MICE 인프라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다른 지역 청년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총회 첫날인 19일에는 MICE 커리어 토크쇼와 각 지역 서포터즈를 소개하는 발표 세션이 진행된다. 전북 마이스어스 27기는 ‘뉴스 데스크’를 콘셉트로 한 발표를 준비해 전북 MICE 산업의 강점을 창의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20일과 21일에는 다양한 실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가상도시의 특성과 과제를 분석해 새로운 MICE 행사를 기획하는 ‘지역 MICE 행사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전북 청년 MICE 서포터즈 ‘마이스어스’ 27기 16명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열리는 ‘2026 코리아 영마이스 앰배서더 총회’에 참가한다. 사진은 2026 전북 청년 마이스 서포터즈, 마이스어스 발대식.

기획 워크숍’을 비롯해 댄스마술과 금소마술 등 안동의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안동 유니크 투어’, 지역 MICE 관련 지식을 겨루는 ‘MICE 골든벨’ 등이 진행된다.

재단은 이번 총회 참가를 통해 전북 청년들이 전국의 MICE 인재들과 교류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향후 전북 MICE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총회가 전북 마이스어스 27기 서포터즈들이 전국 MICE 인재들과 화합하며 미래의 MICE 전문가로 성장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전북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역 청년작가 기획전 ‘삶의 좌표’

국립군산대, 9월 10일까지 전북 기반 청년작가 19인 작품 20여점 전시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 미술관이 지역 청년작가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기획전 ‘2026 미술관 지역청년작가 기획전: 삶의 좌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간다’를 오는 9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24년 시작된 ‘지역청년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잇는 연속 기획전이다. 지역 청년작가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미술 생태계 활성화와 대학미술관의 공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작가 그룹 ‘C.art’ 회원 고지은, 김보미, 김연경, 박성은, 박윤정, 배인솔, 송우연, 안현준, 오혜은, 이민우, 이수아, 이을, 이우상, 장지연, 장지은, 차건우, 차창욱, 최정혁, 한강 작가이며, 회화·조각·사진 등 동시대 시각예술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삶의 좌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간다’는 청년 작가들이 고향과 삶터, 작업실 등 일



상의 공간에서 마주한 경험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각자의 시각 언어로 풀어낸 전시다. 작가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 포착한 기억과 흔적을 작품에 담아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관람객과 공유하고 공감의 장을 만들어간다.

국립군산대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민과 관람객이 일상과 맞닿은 현대미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세대 간 정서적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 ‘남원아트센터’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 전시 활성화

남원시는 남원아트센터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트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춘향 RePLAY’, ‘다 지나간다’ 등 다양한 전시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남원 출신 소년 작가의 17번째 개인전인 ‘한지를 통해 인간의 존재를 표현한 흰 숲’ 30점이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남원아트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11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와 기간에 따라 하루 1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의 대관료로 운영돼 지역 예술인과 단체가 비교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 공연장 청아원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남원시립국악단의 창작 국악극 ‘이바지의 해방일지’가 공연돼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남원아트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공휴일은 휴무이다. 전시 일정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관람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여성문화관, 수강생 모집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자격증과 어학, 창업·부업, 예술 등 29개 강좌에 참여할 시민 572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다.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성문화관 방문 신청을 받아 접수 순서에 따라 수강생을 정한다.

특히 20일과 21일 이틀간은 올해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수강생을 우선 접수한다. 더 많은 시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 교육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자격증과 어학, 창업·부업, 창작·예술, 건강, 문화예술 등 6개 분야에서 29개 강좌를 운영한다.

시는 시민들이 관심과 적성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여가를 알차게 보내고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여성문화관(조곡천1길 7)을 방문하면 된다. 수강료는 월 수업시간에 따라 과목별 2만원에서 6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부모는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 조례’에 따라 한 과목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장 중심 영화교육 ‘촬영장비 시네마 클래스’ 운영

전주시, 촬영장비 · 조명 실습 중심 현장형 전문 교육으로 제작 역량 강화

전주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촬영장비 시네마 클래스’를 운영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전북 및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영상 관계자와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촬영 장비와 조명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촬영 장비 운용 이론 △카메라 기본 조작 △조명 장비 운용 △촬영감독과 촬영팀의 역할 이해 △연출자와 촬영감독 간의 시각 구성 등 실제 촬영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Butterfly △파친코 시즌2 등 다수의 글로벌 영화·시리즈 작품에 참여한 윤병선 촬영감독이 강사로 참여해 실제 상업영화 제작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전북 지역 최초로 지역 전문 촬영감독과 연출감독이 함께 참여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촬영감독은 하이엔드 촬영·조명



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연출감독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촬영을 진행하며 촬영과 연출이 연계되는 소통 및 현장 협업 과정을(예비)영화인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가 영화·영상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영화인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영화인과 예비 영화인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재)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의 현황과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예술인의 활동 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26 완주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활동 현황과 문화예

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2026년 8월 한 달간이며, 완주문화관광재단에서 발송하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는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완주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 · 진안 웅치전투

전주매일 캠페인

완주 · 진안 웅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웅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제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웅치에서 방어에 나섰다.

웅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웅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